

의정부소방서, 특수가연물 화재안전을 위한 민.관 합동 간담회 개최

👤 투어코리아 | 🕒 승인 2024.11.01 00:36



사진제공=의정부소방서

[투어코리아=하인규 기자] 의정부소방서는 10월 31일 의정부시 자원환경센터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,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민.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특수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관리의 안전기준을 제고하고 화재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수가연물이란 화재 발생 시 불이 잘 붙고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로, 주로 특정 산업이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하며 대표적인 특수가연물로는 목재 부스러기, 대팻밥, 폐고무, 폐합성수지, 가연성액체등이다.

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▲특수가연물의 종류, 저장 취급 기준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안내 ▲특수가연물 화재 사례를 통한 관계인 화재 초기대응법 교육 ▲화재진압 시 발생하는 소화 오염수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논의 등이다.

문태웅 의정부소방서장은“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가연물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저장 취급 기준을 알리고 관계인의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SNS,의정부소방서 누리집,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저작권자 © 투어코리아 - No.1 여행·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투어코리아